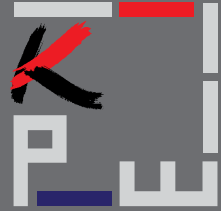


KIEP - 주아세안대표부 공동발간

KIEP 아세안 브리핑 ASEAN Economic Briefing



2016년 10월 13일

18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의 경제적 성과와 과제

이재호 아시아태평양본부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주아세안대표부 주재관
(jhlee@kiep.go.kr)

김제국 아시아태평양본부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jegook@kiep.go.kr, Tel: 044-414-1039)

제16-01호

차 례

1. 서론
2. 한·아세안 경제협력 현황
3. 한·아세안 정상회의 경제 분야 주요 논의 내용
4. 성과 및 과제

주요 내용

- ▶ 아세안은 한국에 외교적으로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경제적으로는 제2위의 무역 및 투자처로서 중요성을 가지는 주요 협력 파트너임.
 - 한국은 아세안과 1989년 대화관계 수립, 1997년 한·아세안 정상회의 정례화, 2007년 한·아세안 FTA 체결 등의 과정을 통해 협력관계를 강화해왔음.
 - 2015년 한국의 대아세안 교역은 총교역의 약 12.4%(약 1,199억 달러) 비중을 차지하며, 2015년 한국의 대아세안 외국인직접투자는 전체의 약 15.6%(약 42억 달러) 비중을 차지해 2대 교역 및 투자처로 부상함.
 - 한국은 한·아세안 FTA 외에 싱가포르, 베트남과 양자 FTA를 체결하였으며, 아세안 및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RCEP 협상에 참여 중임.
- ▶ 한국과 아세안은 2016년 9월 6~7일 개최된 정상회의를 통해 양자간 협력 행동계획 채택, 무역 자유화, 개발협력 등 주요 분야별 협력 계획을 논의함.
 -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향후 한·아세안 협력의 근간인 '한·아세안 행동계획 2016~2020'을 채택해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총 9대 분야에 대한 세부 협력방안을 제시함.
 - 무역 부문에서는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3차 개정안 발효 평가 및 추가 자유화 논의, 2020년 2,000억 달러 규모로 교역 확대, RCEP 타결을 위한 공동 노력 등에 합의함.
 - 개발협력 부문에서는 연계성 증진, 개발격차 해소 등 아세안의 주요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한국의 참여와 협력에 합의함.
- ▶ 본 정상회의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향후 한·아세안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협력 체계 구축, AEC에 대한 인식제고 및 대응전략 마련, 중소기업 지원, 개발협력 분야의 효율화 등 추가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국과 아세안은 이번 19차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관계 지속 확대, 무역 및 투자 증대 협력, 개발협력 분야의 지속 확대 등에 합의함.
 - 한·아세안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향후 추진과제로는 한·아세안 행동계획의 이행과 조정·관리 체계 구축, AEC에 대한 한국의 인식 제고 및 대응전략 수립 지원, 무역 및 투자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 지원, 개발협력 효율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 서론

- 2016년 9월 6~7일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제18차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이 회의에서 한·아세안 양측은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협력 관계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주요 계획에 합의함.
- 이번 회의에서는 한·아세안 협력의 근간을 이루는 한·아세안행동계획(ROK-ASEAN Plan of Action) 2016~2020을 채택해 교역·투자 확대, 중소기업 지원, 연계성 제고, 개발격차 완화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협력을 지속하기로 함.

클상자 1. 한·아세안 관계 개관

1989년	부분대화상대국(Sectoral Dialogue Partnership) 관계 수립
1991년	완전대화상대국(Full Dialogue Partnership) 관계 수립
1997년	제1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제1차 ASEAN+3 정상회의 개최
2004년	한·아세안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대한 공동선언
2005년	한·아세안 FTA 기본협정 체결
2007년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발효
2009년	한·아세안 FTA 서비스협정 및 투자협정 발효
2009년	대화관계 20주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부산)
2010년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공동선언
2011년	한·아세안 무역액 1천억 달러 달성
2012년	주아세안대표부 신설
2014년	대화관계 25주년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개최(부산)
2015년	한·베트남 FTA 발효
2016년	제18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개최(라오스)

- 1989년 대화관계 수립 이후 한·아세안 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현재 아세안은 외교적으로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경제적으로는 제2위의 무역 및 투자처로 부상함.
- 한·아세안 정상회의는 1997년 1차 회의 개최 이래 매년 아세안 정상회의와 함께 개최되고 있으며, 2009년과 2014년에는 각각 한·아세안 대화관계 20주년, 25주년을 기념해 부산에서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음.
- 한·아세안 정상회의는 한반도 비핵화와 같은 주요 외교 사안은 물론 경제협력, 개발협력 등 양측의 주요 협력 사업을 논의해왔음.
- 본고에서는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의 경제 분야 주요 성과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협력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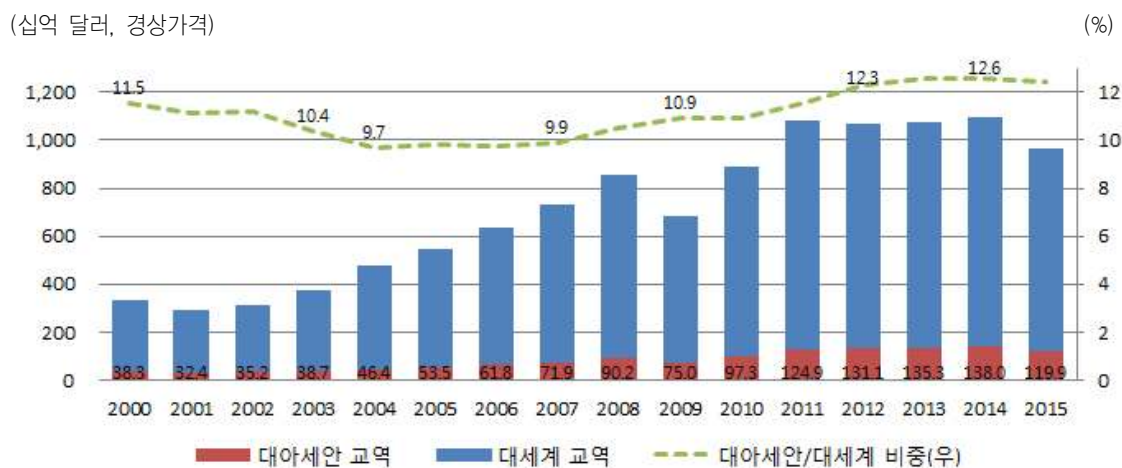
2. 한·아세안 경제협력 현황

가. 무역

■ 아세안은 중국에 이어 한국의 2대 무역 대상지역으로, 한국의 대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아세안은 2015년 기준 수출 2위(748억 달러), 수입 3위(450억 달러)를 기록한 한국의 2대 무역 파트너이며, 이는 총무역액 기준 미국(3위, 1,139억 달러)과 일본(4위, 714억 달러)을 넘는 규모임.
- o 한국의 대아세안 총무역은 2008년 이후 중국에 이어 2번째로 큰 규모를 차지함.
- 한국의 대아세안 무역은 금액뿐만 아니라 대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임(그림 1).
- o 한국의 대아세안 무역은 2000년 383억 달러, 2005년 535억 달러, 2014년 1,380억 달러 규모로 증가했으며, 대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04년 9.7%, 2009년 10.9%, 2014년 12.6%로 증가 추세임.
- o 2015년의 경우 세계 경제 둔화(전년대비 GDP 약 6% 감소) 및 저유가(전년대비 약 44% 감소) 지속 등의 이유로 한국의 총무역 및 대아세안 무역이 감소함(각각 12.3%, 13.1% 감소).

그림 1. 한국의 대세계·대아세안 무역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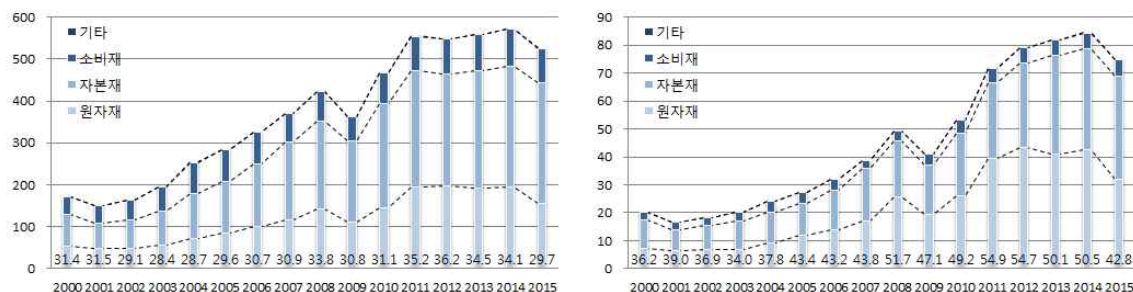
주: 영역 안 숫자는 한국의 대아세안 교역액을, 실선 위 숫자는 대세계 교역대비 대아세안 교역의 비중을 나타냄.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http://stat.kita.net/main.screen>, 검색일: 2016. 9. 7)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한국의 대아세안 무역은 소비재에 비해 원자재와 자본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이며, 이는 한국의 대아세안 직접투자로 인한 지역 내 수직적 분업화 구축과 원·부자재 및 중간재의 수출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2000~15년 동안 한국의 대아세안 총무역에서 차지하는 원자재 교역의 비중은 약 49.5%로, 대세계(43.5%)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함.
 - o 수출의 경우 아세안 시장으로 원자재를 수출하는 비중은 44.7%로, 세계시장 수출에서 원자재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31.6%)에 비해 크게 높음(그림 2).
 - o 특히 한국의 대세계 수출 중 원자재의 비중은 30% 수준에서 등락해왔으나, 대아세안 수출의 경우 원자재가 대체로 50% 내외의 높은 비중을 차지함.
 - o 대세계 자본재 수출비중은 2015년 약 54.5%이며, 대아세안 자본재 수출 비중은 이보다 낮은 49.2%를 기록함.
- 이는 한국기업들이 아세안의 풍부한 저임 노동력을 활용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우회 수출기지로 아세안을 활용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o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 품목은 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 니트/뜨개질 편물, 평판압연제품, 인쇄회로 등 원자재가 수위를 차지함(2015년 기준 각각 2, 5, 7, 8위).

그림 2. 한국의 대세계(좌) · 대아세안(우) 수출 추이: 성질별

(단위: 십억 달러(경상가격), %)



주: 영역 안 숫자는 원자재 수출 비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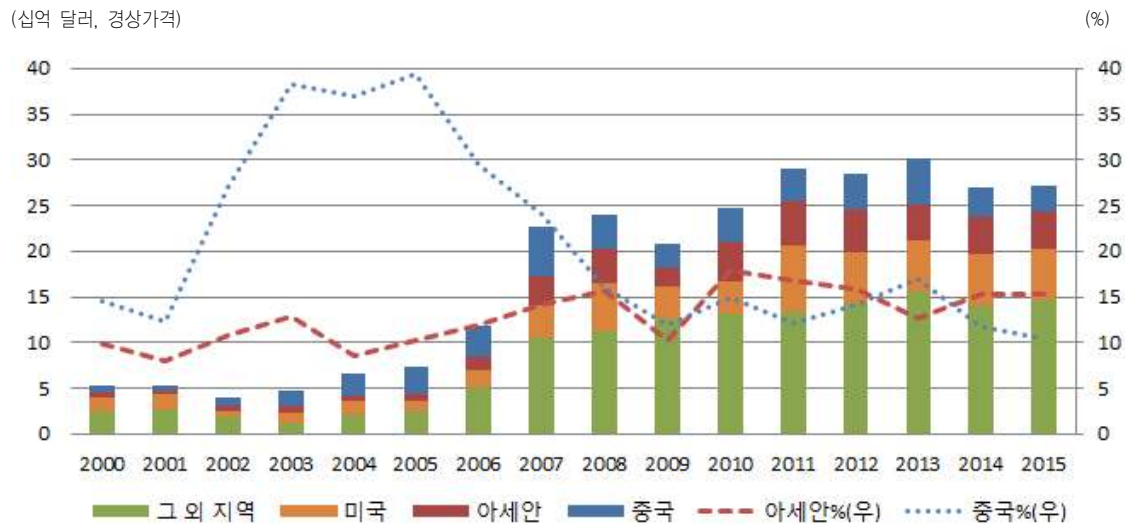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http://stat.kita.net/main.screen>, 검색일: 2016. 9. 7)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나. 직접투자

■ 아세안은 한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로서뿐 아니라 투자처로서의 중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아세안으로의 해외직접투자 유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증가하고 있음.

- 한국의 대아세안 직접투자는 2010년 이후 대중국 투자규모를 넘어섰으며, 2015년 기준 해외직접투자 총액의 약 15.6%의 비중으로 미국에 이어 둘째로 큰 비중을 차지함(그림 3).
- o 2005년 이후 대중국 투자의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에 비해 아세안으로의 투자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아세안이 중국의 투자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2005년 이후 투자비중의 상관계수 -0.58).
- 아세안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증가하고 있음(표 1).
- o 한국은 아세안의 경제협력 파트너 중 직접투자 규모가 2002년 8위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10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누적 6위, 2015년 6위를 차지함.

그림 3.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http://211.171.208.92/odisas.html>, 검색일: 2016. 9. 7)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1. 아세안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추이

(단위: 십억 달러, 경상가액)

구분	2000	2005	2010	2013	2014	2015
일본	968	6,913	12,987	24,750	15,705	17,395
미국	6,913	4,636	13,682	7,157	14,749	12,191
네덜란드	4,385	2,294	1,139	12,450	2,699	7,907
영국	2,142	5,331	5,483	5,736	7,583	6,698
중국	20	140	3,489	6,426	6,990	8,155
한국	-191	495	4,319	4,303	5,751	5,680
호주	-325	237	3,959	2,588	6,282	5,193
그 외	7,897	21,832	63,117	61,455	70,236	56,756

자료: ASEAN Stats Database(<http://aseanstats.asean.org/>, 검색일: 2016. 9. 7)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다. 무역자유화

■ 한국과 아세안은 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한·아세안 FTA 체결,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협상을 예로 들 수 있음.

- 한국은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 외에 싱가포르(2006년 발효), 베트남(2015년 발효)과 개별 FTA를 체결 하였음.

o 아세안은 한국 외에도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및 뉴질랜드와 FTA를 체결했음.

클상자 2. 한·아세안 FTA 추진 과정

2003년 10월	한·ASEAN 정상회의에서 포괄적 경제협력 강화방안에 관한 공동연구 시행에 합의
2004년 3월	인도네시아에서 한·아세안 FTA 공동연구 1차 회의 개최
2004년 8월	한·아세안 FTA 공동연구 5차 회의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상정될 최종 보고서 확정
2005년 2월	인도네시아에서 한·아세안 FTA 제1차 공식협상 개최
2005년 10월	한·아세안 FTA 제7차 공식협상에서 기본협정, 경제협력 부속서, 분쟁해결 협정 타결
2005년 12월	한·아세안 통상장관회의에서 상품자유화방식 합의,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FTA 기본협정 서명
2006년 4월	한·아세안 FTA 제11차 공식협상에서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상 타결(8월 정식 서명)
2007년 4월	국회 본회의에서 한·아세안 FTA 기본협정, 상품무역협정 등의 비준안에 최종 동의
2007년 6월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발효
2009년 5월	한·아세안 FTA 서비스무역협정 발효
2009년 9월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 발효
2009년 10월	한·아세안 FTA 제1차 이행위원회 개최
2013년 9월	서울에서 상품협정 추가자유화 논의를 위해 한·아세안 FTA 특별 이행위원회 회의 개최

- 한국과 아세안은 2013년부터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RCEP 협상에 참여하고 있음.
- o RCEP은 2013년 협상 개시 이후 상품, 서비스, 투자뿐 아니라 지식재산권, 경쟁, 경제협력, 법률제도, 동식물 위생 및 검역조치(SPS), 기술무역장벽(TBT), 원산지, 전자상거래, 통관, 금융, 통신 부문의 역내 자유화를 목표로 협상 중임.
- o RCEP 참여국은 GDP 22조 6천 달러, 인구 35억 명(전 세계 비중 각각 27%, 48%, 2014년 World Bank 기준)의 거대 경제권인 동시에 한국 총 교역의 51.7%(수출 55.8%, 수입 46.8%, 2015년 IMF 기준)를 차지하는 주요 교역 대상지임.

3. 한·아세안 정상회의 경제 분야 주요 성과

가. 한·아세안 정상회의 의장성명 주요 내용

- 한국과 아세안 양측은 2016년 9월 7일 제18차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중장기 협력 행동계획, 무역자유화, 연계성 증진, 개발격차 해소, 문화교류, 한반도 비핵화 등 주요 사안에 합의함.
- 18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경제관련 사안으로는 한·아세안 행동계획 2016~2020, 무역·투자 증진 노력 합의, 한·아세안 FTA 3차 개정안 발효, 무역액 2천억 달러 달성 목표, RCEP 타결 노력, 중소기업 협력, 연계성 증진 협력, 개발격차 해소 협력 등임.

표 2. 제18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의장성명 개요

조항	분야	주요 논의 내용
2~3항	아세안 공동체 · 중심성	2015년 아세안공동체 출범 및 아세안공동체 비전 2025 지지·지원 동아시아 논의(아세안+3, EAS, ARF) 아세안 중심성 지지
4~5항	무역투자·FTA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3차 개정안, 민감품목 추가자유화 2020년 무역액 2천억 달러 달성 목표
6항	RCEP	RCEP 타결을 위한 노력 촉구
7항	산림협력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출범 추진
8~9항	중소기업	한·아세안비즈니스위원회(Korea-ASEAN Business Council) 중소기업 지원, 인적자원개발
10항	Tariff Finder	ASEAN+1 형태 FTA 관세율 검색 시스템 지원(한·아세안 협력기금 사업)
11~12항	재난대응	재난대응 관련 협의체 구성 및 지원, 기후변화대응(GGGI, GCF) 협력
13항	연계성 증진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25 지지·참여 한·아세안 연계성포럼 2016년 12월 개최(서울)
14항	개발격차 해소	3차 아세안 통합이니셔티브 실행계획(IAI: 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 Work Plan) 2016-2020 지지·지원 소지역협력(한·메콩협력) 지속
15항	한·아세안센터	무역투자, 관광, 문화협력 증진
16~17항	문화·교육·학술	2017년 한·아세안 문화교류의 해, 교육·학술 분야 및 인적교류 지속
18~19항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통일 지지

자료: 아세안 사무국 자료를 참고로 저자 작성.

나. 주요 경제 분야 논의 내용

1) 무역 증진: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및 RCEP 협상 타결 노력에 합의

■ 한국과 아세안은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3차 개정안 발효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민감품목 추가 자유화를 위한 노력에 합의함.

- 한국과 아세안은 2007년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발효 이후 활용률 개선 및 추가개방을 위한 대화와 협상을 지속해왔음.

o 2007년 한·아세안 FTA 발효 후 양측의 교역 규모는 크게 증가했으나 기업들의 인식 부족,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실제 FTA 활용률이 낮음.¹⁾

1) FTA 활용률은 협정문에 명시된 관세양허 품목의 교역액 중에서 실제 FTA 관세인하 혜택을 받고 교역이 이루어진 비율로,

- 이에 한국과 아세안 양측은 14차례에 걸친 이행위원회를 통해서 활용률 개선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전자 원산지증명서 인정, 민감품목 추가 자유화 논의 등을 지속해옴.
- 이번 정상회의에는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3차 개정안 발효 및 향후 추가자유화를 통해 향후 2020년 교역액 2,000억 달러 목표 달성에 협력하기로 함.
- 한·아세안 양측은 FTA 상품협정 3차 개정안에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 인정, 사전심사 조항과 같은 무역 원활화 규정을 도입해 FTA 활용 절차상의 편의를 개선함.
- 한·아세안 FTA는 상호주의 조항으로 인해 한국이 민감품목으로 분류한 품목에 대해 수입국(아세안)이 해당품목을 일반품목으로 양허했다라도 양허관세 혜택을 배제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3차 개정을 통해서 6개국의 상호주의 폐지를 이끌어냈으며, 향후 나머지 국가들의 폐지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한·아세안 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편의를 위해서 향후 2024년까지의 아세안 각국의 관세율 변화표를 상세히 협정문상에 첨부하기로 함.

글상자 3.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3차 개정서 주요 내용

1. 무역원활화 규정 도입: △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 인정 △ 기업별 부가가치기준 선택 허용,
△ 사전심사 조항 도입 △투명성 규정 보완
2. 상호주의 제도 개선 : 베트남·라오스·싱가포르·미얀마·브루나이·말레이시아 상호주의 폐지,
인도네시아·캄보디아·필리핀·태국은 확대 금지
3. 연도별 관세인하 일정 명시화: 2016~24년 아세안 FTA 관세율 변화표 협정문 첨부

■ 한국과 아세안 양측 정상은 RCEP 협상 타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함.

- RCEP은 미국이 주도하는 TPP에 대응한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경제권 출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2015년 출범한 TPP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협상 진전이 더딘 상황임.
- RCEP 협상은 2016년 8월 14차까지 진행되었으며, 협상 분야는 상품·서비스·투자 분야 개방, 경제기술 협력, 지재권 등 총 14개 분야임.

2) 한·아세안 협력: 한·아세안 행동계획(ROK-ASEAN Plan of Action) 2016~2020

■ 한·아세안행동계획은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총 9대 분야에 걸친 세부 협력 방향 및 계획에 대한 합의이며, 이번 정상회의에서 향후 5년간 한·아세안 협력 방향에 합의함.

2016년 1/4분기 한·아세안 FTA의 활용률은 수출 43.7%, 수입 70.9%로 수출 활용률이 저조한 상황임.

- 한·아세안 행동계획은 △ 정치·안보 △ 경제 △ 사회·문화 △ 연계성 △ 역내협력 △ 개발격차 해소 △ 소지역(sub-region) 협력 △ 제도역량강화 △ 협약 이행 등 양측 협력관계 전반에 걸쳐 폭넓은 부문을 포함함.
- 경제협력 부문에서는 무역·투자 증진 협력을 비롯해 지역무역협정 등 11개 세부 분야에 대한 협력방안을 제시함.
- 무역·투자 등 경제부문 협력 이외에도 연계성, 개발격차 해소, 소지역 협력 등 개발협력 분야 또한 주요 협력 분야로 채택됨.

표 3. 한·아세안 행동계획 2016~2020 개요

1. 정치·안보 협력	2. 경제 협력	3. 사회·문화 협력	4. 연계성
1.1 정치 협력	2.1 무역·투자	3.1 재난 관리	5. 역내·국제 협력
1.2 안보 협력	2.2 지역무역협정	3.2 환경	5.1 동아시아 협력
1.3 해양안보 협력	2.3 금융	3.3 보건	5.2 다자간포럼
1.4 비전통 안보	2.4 관세	3.4 교육	6. IAI 개발격차 해소
1.5 거버넌스·인권	2.5 중소기업	3.5 정보	7. 소지역 협력 (Sub-regional cooperation)
1.6. 현대화	2.6 에너지	3.6 문화·예술	8. 제도역량 강화
	2.7 인프라	3.7 청년·인적 교류	9. 협약 이행
	2.8 교통	3.8 스포츠	
	2.9 식량·농업·산림	3.9 대민 서비스	
	2.10 ICT	3.10 노동·이주노동자	
	2.11 관광	3.11 사회복지·개발	
	2.11 과학·기술·혁신		

자료: 아세안 사무국 자료를 참고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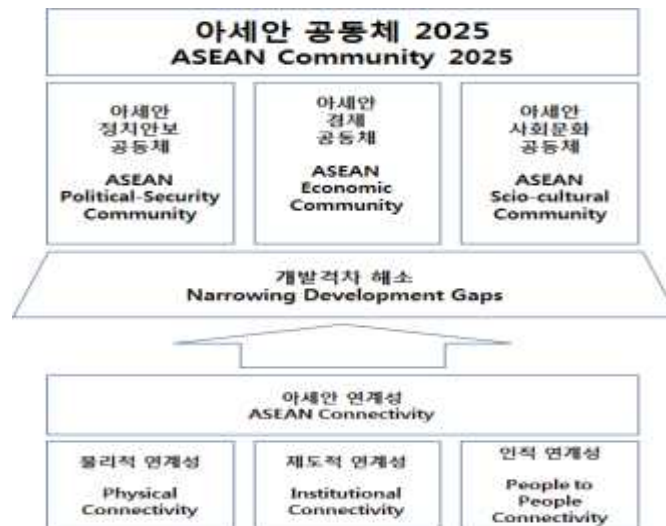
■ 경제협력 분야 11개 부문의 협력은 주요 부처별 Working Group간 협의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연계성, 개발격차 해소, 소지역 협력 등에는 유무상 원조 및 협력기금을 활용한 협력사업 추진이 예상됨.

- 개발협력 분야의 경우 연계성 부문은 아세안 연계성 기본계획(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이하 MPAC) 2025, 개발격차 해소는 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IAI: 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 이하 IAI) Work Plan III, 소지역 협력은 한-메콩 협력기금 사업 등을 통해서 협력방안을 발굴·실행할 예정임.

3) 물리적·제도적 연계성 협력: 아세안 연계성(ASEAN Connectivity) 기본계획 2025

■ 아세안 연계성 기본계획 2025는 물리적(Physical), 제도적(Institutional), 인적(People to People) 연계성 증진을 통한 개발격차 해소를 통해 2025년 아세안 공동체 달성을 추진하는 핵심 사업임.

그림 4. ASEAN Connectivity 2025 개념도



자료: ASEAN Secretariat(2016), p. 15.

■ 아세안 연계성 사업은 태국에서 제안한 MPAC 2010을 통해서 추진되어 왔으며, 신규 MPAC 2025 계획이 채택됨.

- MPAC 2010의 125개 사업 계획 중 2016년 5월까지 물리적 연계성 분야 18개, 제도적 연계성 15개, 인적 연계성 6개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나머지 사업은 MPAC 2025에 포함되어 추진됨.
- MPAC 2025는 △ 지속가능한 인프라(Sustainable Infrastructure) △ 디지털 혁신(Digital Innovation) △ 원활한 물류(Seamless Logistics) △ 모범 규제(Regulation Excellence) △ 인적 이동(People Mobility) 등 5대 전략과 부문별 전략계획 및 이니셔티브를 통해 추진됨.

표 4. 아세안 연계성(MPAC) 기본계획 2025 주요 전략 목표 및 이니셔티브 개요

5대 전략	전략 목표	이니셔티브
지속가능 인프라	· 공공·민간 인프라투자 증대 · 인프라 생산성 모범사례 평가·공유 · 스마트 도시화 모델 도입 확대	· 인프라 수요-자금지원 연계 · 인프라 생산성 평가·향상 플랫폼 구축 · 지속가능 도시화 전략 개발
디지털 혁신	· 중소기업 기술 지원 · 디지털 기술 활용 금융접근성 지원 · 오픈데이터 사용 향상 · 데이터 관리 지원	· 중소기업 기술 플랫폼 구축 · 디지털 금융포용 프레임워크 구축 · 오픈데이터 네트워크 구축 · 디지털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구축
물류 원활화	· 공급망 비용 절감 · 공급망 신뢰성 및 속도 향상	· 무역경로·물류 원활화로 경쟁력 강화 · 병목부문 발굴로 공급망 효율성 개선
규제 혁신	· 주요 분야별 표준, 적합성, 기술규정 통일 및 상호인증 · 비관세장벽 축소	· 3대 우선 상품군 표준 통일, 상호인증, 기술규정 도입 완료 · 비관세장벽 투명성·평가 시스템 강화
인적 이동	· 관광 원활화 · 직업훈련 수요·공급 격차 축소 · 아세안 역내 학생 교류 증대	· 관광 정보검색 지원 · 비자 발급 절차 개선 · 직업훈련, 인증제도 도입 · 고등교육 교환학생제도 지원

자료: ASEAN Secretariat(2016) p. 7.

4) 개발격차 해소 협력: 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IAI)

■ 아세안은 후발가입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이하 CLMV)과 아세안 선도국가들과의 개발격차 해소를 위해서 2000년 IAI를 출범해 현재 2차 Work Plan을 종료하고 3차 Work Plan을 추진하고 있음.

- IAI는 2000년 출범, 일련의 준비과정을 거친 후 2002년부터 IAI Work Plan I(2002~2008)이 시작된 이래 IAI Work Plan II(2009~2016)가 종료된 상황이며, IAI Work Plan III(2016~2020)가 출범함.
- IAI Work Plan II의 경우 총 182개 사업 중 78개 사업만 진행되어 사업진행률이 42% 수준에 그쳤으며, 나머지 사업들은 IAI Work III를 통해 진행할 예정임.
- 기본 IAI 사업은 인프라 확충, 정책지원, 역량강화 등 거시적인 부문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반면, IAI III의 경우 농업, 무역, 중소기업, 교육, 보건 등 보다 구체적인 전략 목표를 설정한 것이 특징임.

표 5. 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 기간별 진행 내역 개요

IAI Work Plan		사업 형태
1기	2002~2008	232개 사업(4대 분야: 인프라, 인적자원, ICT, 역내 경제통합)
2기	2009~2016	182개 사업(3대 분야: 연구 19, 정책·지원 78, 훈련·역량강화 85)
3기	2016~2020	26개 실행계획(5대 전략: 농업 7, 무역 6, 중소기업 5, 교육 5, 보건·웰빙 3)

자료: ASEAN Secretariat(2016), pp. 9~10 참고로 저자 작성.

■ IAI Work Plan III(2016~20)는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5대 전략 목표(5 Strategic areas & Objectives) 아래 세부 분야별 목표를 수립·추진하는 형태로 구성됨.

- Work Plan III에 제시된 분야별 목표와 아세안, 대화상대국(Dialogue partner), CLMV 국가 등 이해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서 프로젝트가 제안·채택·추진될 계획임.
- o IAI 프로젝트는 이해당사자간 회의를 통해 제안된 프로포절 중 ① 아세안공동체 우선추진 부문 해당 ② IAI Work Plan III에 기여 가능 여부 ③ CLMV 중 2개국 이상의 수혜 여부 등의 기준에 따라서 채택하며, 반기·연도별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서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임.
- o 한국은 현재까지 CLMV 지역에서 다수의 개발격차 해소 관련 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해왔으나 IAI 사업으로 승인받은 사업은 한·아세안협력기금 및 한·아세안센터 사업 4건에 그쳐, 향후 IAI 사업 승인 요건 및 절차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²⁾

2) 한·아세안 협력기금 사업: Strengthening CLMV Capacity for ASEAN Cyber University(2010~13, 1백만 달러), ASEAN Millennium Leaders: CLMV Student Exchange Program(2012년, 18만 달러), Resource Recirculated Low-Carbon City Master Plan CLMV(2010년, 34만 달러), 한·세안센터 사업: Tourism Promotion Website(Korean) for CLMV countries(2011년, 25만 달러).

표 6. 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 Work Plan III(2016~2020) 분야별 이행방안 개요

5대 전략 목표	세부 목표
식량·농업	① 농촌빈곤 감소 ② 농업 생산성 증대 ③ 농산물 무역 증대 ④ 지속가능 농업사례 채택 확대 ⑤ 식량안보 향상
무역활성화	① 비관세장벽 감소 ② 세관 시간·비용·절차 감소 ③ 상품인정, 적합성, 기술표준 통일 ④ WTO 참여확대로 시장접근성 개선
중소기업	① 중소기업 금융접근성 개선 ② 인적자본개발(여성·청년) ③ 개업 시간·비용 축소 ④ 중소기업 성장 시장접근·국제화
교육	① (초·중등) 교육접근성 개선 ② 기초교육 질적 향상 ③ 직업 교육·훈련, 고등교육 질적 향상 ④ 전 분야 영어교육 기준 강화
보건 웰빙	① 모자보건 향상 ② 전염병 감시·예방·관리 ③ 식품 안전

자료: ASEAN Secretariat(2016), pp. 13~23 참고로 저자 작성.

5) 중소기업 지원: 한·아세안 비즈니스 협의회

■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한·아세안 비즈니스 협의회(Korea-ASEAN Business Council)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아세안 내 여러 비즈니스 협회들이 동 협의회에서 논의된 실용적인 제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참여를 촉구하기로 함.

- 한·아세안 비즈니스 협의회는 2014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당시 출범한 한·아세안 간 최초의 민간 협력 기구로, 현재까지 3회에 걸쳐 중소·중견 기업 지원, 시장정보 교환, 사절단 파견, 규제완화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옴.
- 2016년 8월 개최된 한·아세안 비즈니스 협의회에서는 ‘한·아세안 중소기업 협력 및 교류방안’, ‘할랄푸드 산업의 성장과 잠재력’, ‘한·아세안센터의 아세안 국가 중소기업 지원활동’ 등 다양한 주제발표를 통해 정책·비즈니스 정보 확산 및 아세안 국가 정책담당자들에게 주요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기회를 가짐.
- 향후 한·아세안 비즈니스 협의회는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과 함께 아세안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 유관기관, 정책담당자 등 여러 이해당사자간의 교류 및 정책 제언을 위한 매개로 지속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됨.

4. 성과 및 과제

가. 주요 성과

1) 포괄적 분야의 협력관계 지속 확대

■ 한·아세안 정상회의는 한·아세안 정치, 경제, 사회·문화, 개발 등 주요 협력 분야는 물론 아세안 공동체 출범과 같은 주요 경제 환경 변화를 고려한 포괄적 협력정책 논의의 장으로서의 의미를 가짐.

- 한·아세안 양측 정상들은 한국과 아세안의 전통적인 우호 협력관계의 증진은 물론 아세안 공동체의 성공적인 출범을 지지·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할 것을 합의함.
- 특히 향후 5년간 양측 협력사업의 근간을 이루는 한·아세안 행동계획 2016~2020 채택으로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개발협력 등 포괄적인 정책 협력 기반이 조성됨.

2) 무역·투자 증진

■ 이번 정상회의의 경제부문 핵심 주제인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RCEP 등 주요 무역·투자 자유화 조치로 양측의 무역·투자 증진 노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함.

-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3차 개정안 발효 및 추가 자유화를 통해 향후 2020년 무역액 2,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함.
- 또한 2016년 연말 타결을 목표로 하는 RCEP 협상 진전을 위한 참여국의 노력에도 합의함.

3) 개발협력 지속 확대

■ 아세안 공동체 출범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연계성, 개발격차 해소 등 주요 개발협력 사업 진행과 관련해서도 지속 협력하기로 함.

- 양측 정상은 연계성, 개발격차 해소 등의 분야에서의 지속적 협력을 통해 역내 개발협력 증진과 아세안 공동체 출범을 지원하는 데 협력하기로 함.
- 연계성, 개발격차 해소 등 기존 개발협력 메커니즘과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이 제시한 '4대 개발협력 구상'을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o 4대 개발협력 구상: △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Better Life For Girls) △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Safe life For All) △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STI) for Better Life) △ 농촌개발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New Rural Paradigm)

나. 향후 추진 과제

1) 한·아세안 행동계획의 포괄적 조정·관리 체계 구축

- 한·아세안 협력관계의 근간을 형성하는 한·아세안 행동계획의 원활한 이행·점검·평가 등 포괄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정상회의, 각료회의, 고위급회의 등 한·아세안 양측의 협력을 위한 다층적인 회의체가 이미 마련되어 있으나,

한·아세안 행동계획에서 합의된 사항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임.

- 이를 감안하면 정상회의를 계기로 채택된 한·아세안 행동계획의 주요 분야별 이행전략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정·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함.

2) 한국기업들의 AEC 출범 인식 제고 및 대응전략 수립 지원

■ 2015년 말 AEC(ASEAN Economic Community, 아세안 경제공동체) 출범으로 인한 역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한국기업들의 인식 제고 및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 한국의 2대 교역지역이자 투자처인 아세안이 2015년 말 AEC 출범을 통해 단일시장 및 생산기지(Single Market and Production Base)로의 변화를 진행 중임.
 - o 아세안은 단일 경제권 형성을 목표로 통관, 투자, 제도 등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음.
 - o AEC는 4대³⁾ 축을 기반으로 하며, 2015년 11월 개최된 제27회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AEC 청사진 2025'는 이를 계승한 5대 목표⁴⁾를 설정함.
- 다국적 기업들은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대응전략을 마련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나, 한국기업들의 경우 AEC 출범으로 인한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은 물론 대응전략도 미비한 상황임.⁵⁾
- 향후 한국기업들의 AEC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대응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정보수집 및 전략수립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3) 무역투자 활성화 지원

■ 한·아세안 양측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FTA 추가 자유화 및 활용률 제고를 통한 무역액 2,000억 달러 달성 목표를 재확인했으며, 이를 위한 추가적인 무역활성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기존에는 대다수의 무역활성화 조치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세관절차 개선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최근 한·아세안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된 ASEAN Tariff Finder 시스템과 같은 무역활성화 조치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⁶⁾

■ 최근 대규모 투자를 활용한 생산네트워크 구축이 수출 확대에 이어진 베트남의 선순환 구조를 여타 아세안

3) 단일시장 및 생산기반 구축, 경쟁력을 갖춘 경제지역, 균형 경제 발전, 세계경제로의 통합.

4) ① 고도로 통합·결합된 경제권 ②경쟁력 있고 혁신적이며 역동적인 아세안 ③연계성 강화 및 부문별 협력 ④포용적이고 인간 중심의 아세안 ⑤글로벌 아세안.

5) 2015년 KIEP 설문조사에 의하면 국내기업 중 AEC 출범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습득하고 인지하고 있는 기업의 비중이 9%에 지나지 않으며, AEC 출범에 대비한 전략을 수립한 기업의 비중은 5% 수준에 그침.

6) ASEAN Tariff Finder(<http://tariff-finder.asean.org/>)는 한·아세안 협력기금 사업으로 구축되었으며, 아세안+1 형태 모든 FTA의 개별 품목별 관세율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아세안 현지 기업은 물론 아세안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무역 원활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국가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⁷⁾

- 2015년 베트남은 일본을 제치고 중국, 미국에 이어서 한국의 3대 수출국으로 부상한 바 있는데, 이는 한국의 전략적 투자 → 생산네트워크 구축 → 수출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선순환 구조는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 증가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산업고도화에도 기여해 베트남을 세계적인 스마트폰 생산국으로 부상시킨 사례가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4) 중소기업 지원

■ 한국 중소기업 대상 대아세안 진출지원, 현지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애로사항 개선 등 중소기업 지원책 마련 및 유관기관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함.

- 기존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무역협회, 한·아세안센터 등이 담당하는 중소기업 진출 지원정책을 아세안 맞춤형 전략으로 보다 특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아세안 현지에서의 중소기업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한·아세안 비즈니스 협의회,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 국별 상공회의소 등 주요 협의체들과도 정책협의 혹은 협업 형태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마련해 보다 현실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5) 개발협력 시스템 효율화

■ 한국의 비교우위를 감안한 개발협력사업 추진, 중장기적인 협력사업 운영, 사업간 연계성 추구 등의 형태로 개발협력 사업을 효율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대규모 개발협력 예산을 활용한 인프라 개발 중심의 사업보다는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제도, 교육훈련 등의 역량강화 중심의 사업 발굴로 실질적인 성과를 추구할 필요가 있음.
- o 연계성 강화사업의 일환인 한·메콩 협력기금으로 메콩연구소가 시행 중인 물류분야 역량강화 사업을 주요 사례로 볼 수 있음.

■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한·아세안 개발협력 사업의 규모 및 기간을 확대해 기존 소규모·사업의 한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 현재 700만 달러 규모인 한·아세안 협력사업 예산 규모를 1,000만 달러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한·아세안 협력사업 구조를 기존 단기성 프로젝트에서 중장기 프로그램 형태로 전환하는 협의가 진행 중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함.

7) 이재호(2015),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증가 배경 분석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5, No. 2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7월 16일)

- 현재 아세안 연계성, 개발격차 해소, 메콩 소지역 협력 등 다양한 개발협력 채널이 마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협력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추구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 2016년 10월 ACCC(ASEAN Connectivity Coordination Committee) 회의, 11월 예정인 제4차 연계성 포럼 등 협력사업 발굴 단계부터 프로젝트간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상호 연계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 **KIEP**